

# 북한 산업미술사 연구 방법 모색: 70년사 선행연구 사례 중심으로

## An Investigation into Studying the History of Industrial Art of North Korea: Focusing on Earlier Studies of Economic and Cultural Policy Aspects

최희선(중앙대학교)

Choi Heesun (Chung-Ang University)

1. 서론
2. 북한의 디자인 관련어 이해
  - 2.1. 근대 디자인 용어 '도안'의 북한 정주(定住)
  - 2.2. 북한의 광의(廣義)한 산업미술 개념
3. 북한 산업미술 연구의 특수성
  - 3.1. 기록 자료들의 전일적 체계와 연결성
  - 3.2. 사회집단주의적 디자인 관점
4. 북한 산업미술 70년 전개를 이끈 두 개의 축: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주체미술론
5. 결론

## 요약

본 논고에서는 북한 산업미술 역사 연구에 기초를 이루는 관련어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북한 산업미술 70년”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북측의 산업미술 역사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에서 디자인은 일본에서 번역된 ‘도안’과 ‘산업미술’로 불리며, 공업생산 제품 외에 건축물, 생활환경까지 좀 더 넓은 범위에 응용되는 미술로서 확대 해석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 연구를 위한 문헌 자료들은 생산 주체들이 노동당과 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전일적 관점에서 정보들을 기록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북한 산업미술은 계획경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문화예술에 적용한 주체문예이론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여, 사회주의 윤리의식과 민족공동체의 통일된 미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집단주의적 디자인의 특성을 갖고 있음을 관찰했다.

## 핵심어

디자인, 북한 산업미술, 역사, 경제정책, 문예이론, 사회집단주의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s of North Korean industrial art, and

describes how to approach it in terms of economic and cultural policies that continue to influence the history of North Korean industrial art. In Korean, design is called “doan,” as derived from the Japanese, and is also referred to as “industrial art” in North Korea. Today, North Korean industrial art is being interpreted as an art applied to a wider range of areas than in the past, including architecture, urban design, graphic design, and industrial products. In addition, literature materials on North Korean industrial art research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came up with this had a deep connection with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Literature and Arts, and that they also recorded information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North Korean industrial art grew especially more persuasive under the influence of North Korea’s theory of juche art and literature, as well as the country’s socialist planned economy. According to a study titled “70 Years of North Korean Industrial Art,” it was observed that North Korean design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social collectivism that emphasized the socialist ethic and the unified aesthetic sense of the national community.

## Key Words

Design, North Korean Industrial Art, History, Economic Policy, Art Theory, Social Collectivism

## 1. 서론

한국에서 북한 연구는 남북의 자유로운 인적, 물적 왕래나 정보 교류가 허용 되지 않는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왔다. 북한 산업미술의 역사 연구도 온전한 조건이 아닌, 남측 제한된 자료들을 통해 관찰할 수밖에 없는 연구 방법에 큰 결점을 지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과거 유홍준은 「북한미술의 사적(史的) 전개와 그 이해」(1990)<sup>1)</sup>에서 “북한미술 평가를 유보하는 까닭은 북한미술의 진정한 이해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일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서 북한미술 연구는 사료 접근성과 연관이 있다. 한국은 1988년 정부의 7.7선언으로 북한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 기관이 아닌 개별 연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8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발전연구소가 ‘북한 문화예술 연구’ 중 한 분야로 북한미술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북한 산업미술의 흔적을 찾는 첫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21세기 전환기 남북관계 향상에 따라 한국의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미술 작가, 작품들이 소개되고 연구자들이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출판된 북한미술

서적에서 디자인에 대한 담론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측의 북한디자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승희<sup>2)</sup>와 김진홍<sup>3)</sup>의 연구로, 이 논문들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이 디자인계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국내의 북한 산업미술 연구는 규모나 내용 면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대내외에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이후 북한 산업미술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들을 한국에서도 간간히 발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북측 연구자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과 수집 방법에 대한 국내법적 한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 산업미술 연구에 대해 조심스러운 자세가 요구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본 논고는 남측의 연구자로서 북한 산업미술 역사 연구에 기초를 이루는 관련어들의 개념을 살펴보고, 직접 디자인을 보지 못하고 기획 의도와 개발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참고해야 하는 북측이 배포하는 문헌 자료들의 기본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유홍준, 「북한미술의 사적(史的) 전개와 그 이해」, 『북한의 예술』 북한의 인식-9, 김문환, (을유문화사, 1990), pp.13-42

2 권승희, 「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디자인 비교 연구: 일간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6) pp.1-175

3 김진홍, 「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 『북한연구 2』,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1999), pp.433-448

특히 “북한 산업미술의 전개를 이끈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북한 산업미술 70년사”의 선행연구<sup>4)</sup>에서 관찰된 북측의 산업미술 역사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경제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디자인 관련어 이해

### 2.1. 근대 디자인 용어 ‘도안’의 북한 정주(定住)

북한 사회에서는 디자인을 칭할 때 ‘산업미술’ 혹은 ‘도안’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특히 디자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도안’이라는 합성어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랜드의 로고나 심볼 디자인을 ‘상표도안’으로, 상업 간판 디자인을 ‘거리 간판도안’, 가구와 기계류 디자인을 ‘공업미술 형태도안’, 의복 디자인을 ‘의상도안’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sup>5)</sup> 북한 사전에서 ‘도안’과 관련어들의 뜻을 찾아보면 오른쪽과 같이 적고 있다.

북한사전에서 정의한 ‘도안’ 개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산업미술은 공업화를 기본으로 한 실현도(圖)을 창작하는

북한 『조선말대사전』의 <도안(圖案)> 뜻풀이<sup>6)</sup>

- <도안> (명) 공예품, 건축의 구성과 장식형성, 공업제품의 형태와 색깔 등을 꾸미기 위하여 고안하는 평면상의 그림.
- 예) 상표-, 우표-, 휘장-  
결의를 다지고 어버이 수령님께서 보내주시는 도안을 펼쳐놓고 치수와 재보고 갑피에 뚫는 구멍수도 세어보면서 도안대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였다.《인민들 속에서》
- (동) 도안하다: 타동사
- <도안기법> (명) 《미술》도안 하는 기교와 수법
- <도안화> (명) 도안이 되게 묘사대상을 조형적으로 가공하여 그리는 것, 묘사대상의 특징과 본질을 뚜렷하게 살리면서도 간결하고 선명하게 그려낸다. 양식화의 수법이 많이 적용된다.

것과 달리, 도안은 ‘산업미술’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공예, 건축, 공업 영역에 쓰이는 실용적인 밑그림을 말할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도안화(圖案畵)’는 대상의 형태와 색을 생략 혹은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림 양식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즉, 도안화는 일종의 ‘포스터화(Posterized Image)’이나, 일명 ‘구성화’ 방식으로 그려진 그림으로서, 생산이나 실용적 목적만을 그린 그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미술교과서에서 소개된 ‘도안화’의 예시를 보면 그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고등중학교 1학년용 미술교과서(2001)<sup>7)</sup>에 단원

4 “북한 산업미술 70년사”는 최희선의 한국연구재단 2016-2018년 저술출판 지원과제의 연구 제목임(NRF-2016S1A6A4A01020371)

5 최희선,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과 남북 디자인 교류 전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1)

6 사회과학원 편,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608 \*이 논문에서는 북한 원전의 조선어표기법 그대로 인용하였다.

7 『고등중학교 1학년용 미술교과서』,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1)

중 ‘도안’에는 색채구성, 평면구성, 무늬구성, 글씨도안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교과서에 실린 색채구성, 평면구성의 도안 예시들을 살펴보면, 마치 20세기 러시아 구축주의(構築主義, Constructivism) 양식의 기하학적 조형화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술교과 과정에서 도안은 ‘구성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사전 제작한 ‘형성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도안은 과거 전통시대의 설명하기 위해 그린 ‘도(圖)’와도 다른 개념이며, 오히려 남측 미술교육에서 ‘구성’이라 칭하는 화법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한섭의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2012)<sup>8)</sup>에 의하면 근대적 디자인의 ‘도안(圖案)’은 일본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온 외래 한자어 중 하나로 설명한다. 전통시대의 도안이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의 ‘본(本)’을 의미하다면, 근대 미술교육 출범시대 한·중·일에서는 의복, 무대, 건축 등에 응용되는 장식 문양의 ‘고안(pattern design), 설계(設計)’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 외래 한자어가 대한제국에 전파된 배경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서구 미술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신조어가 발생 되었고, 열강들 사이에서 한국 내 일본산 제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과정에서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8 이한섭 외,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2012), pp.138-139

9 『조선왕조실록』 “순종 1년(1908) 8월 13일 양력 1번째 기사(1908년, 대한 융희(隆熙) 2년)”, 국사편찬위원회 번역 참조.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발명, 제품 도안,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하여 현재 일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은 여러 법령이 본 조약이 시행되는 동시에 한국에서 시행되게 하며, 다음의 여러

북한은 지금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조문에 ‘도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제에서 초기 ‘의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북한법에서는 ‘의장’대신 ‘도안’을 선택했다. 북한 법령 중 대한민국의 디자인보호법과 유사한 <공업도안법>과 6개월 먼저 채택된 <상표법>이 있다. 이 법령들의 조문에는 ‘산업미술’, ‘의장’이라는 용어는 없고, 대신 ‘도안’이 언급되어있다. 북한 <공업도안법><sup>10)</sup>에서는 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품의 형태, 색깔, 장식을 그림과 사진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대상과 표현 범위를 정하고 있다.

“북한 공업도안법”의 <공업도안> 뜻풀이<sup>11)</sup>

제2조(공업도안과 그 분류)

공업도안은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 것이다. 공업도안에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약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속한다.

‘도안’이 언급된 또 다른 북한법이 있다.

법령은 한국에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의 관리와 국민 및 한국의 관리와 국민에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전항에 지시한 일본국의 현행 법령이 급후 개정될 때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법령도 역시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10 공업도안법은 1997년 제정된 ‘품질감독법’에 예속되어 있다가 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독립 채택되었다. 이후 1999년, 2005년, 2011년 4회 수정되었다.

11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2015: 북한법·통일법 연구 기초자료집, (북한법연구회, 2011), p.1111

바로 상품과 봉사(서비스)의 표식에 관한 '상표법'이 그것이다. 북한의 '상표법'은 1998년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된 것으로, 북측의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관련법들(상표법(1998.1.14), 발명법(1998.5.13), 공업도안법(1998.6.3), 저작권법(2001.4.5) 중 가장 먼저 독립된 법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이 법의 내용은 다른 법들에 비해 더 여러 차례 수정 보충되었을 만큼, 북측의 공업·상업 분야 지원을 위해 당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안이란 앞으로 생산되거나 설치될 제품의 크기와 모양, 색깔, 장식 등을 종이 위에 그려놓은 그림설계 같은 것을 말한다. 산업미술도안에는 제품의 기술적 재원도 반영되고 생산성도 고려되어있다. 그러므로 도안이 창작되어야 제품의 질과 경제적 수익성이 보장된다.<sup>12)</sup>

북한 산업미술계의 '도안'의 개념은, 위에 인용한 평양미술대학 연구사 박사이자 부교수인 박철룡의 노동신문 기고문(2013. 11. 13)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도안을 공업제품 개발을 위한 시안(試案), 설계도, 계획도와 같은 의미로 풀이하며, 제품생산과 경제적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북한에서의 '도안'은 회화적 표현 수단, 지식재산권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산업미술 학계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형 창작활동으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북한의 광의(廣義)한 산업미술 개념

북한은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의 한 분야로 디자인을 설명할 때는 '디자인(design)'이라는 외래어 대신 '산업미술'을 사용한다. 산업미술의 세부 분야에 대해 북한의 대표적 사전인 『조선말대사전』은 "사회적 기능에 따라 형태미술, 장식미술, 산업출판미술 등"으로 구분한다. 사전에서 북한 산업미술의 분류는 '디자인의 기능과 목적' 중심으로 나눈 것으로, 제조를 위한 형태미술(공업미술), 꾸밈을 위한 장식미술, 인쇄를 위한 산업출판미술로 분류하였다.

북한 『조선말대사전』의 <산업미술> 뜻풀이<sup>13)</sup>

<산업미술> 명) 제품의 형태와 색깔, 생활환경 같은 것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또는 쓸모 있게 만들거나 꾸리는 등 산업 목적에 이바지하는 미술. 사회적 기능에 따라 형태미술, 장식미술, 산업출판미술 등으로 나눈다.  
예) 무대미술과 -  
<산업도안> 명) 다량 생산을 전제로 창작되는 공업제품도안  
예) 산업미술에서의 도안은 그 대부분이 산업도안이다.

북측의 산업미술은 사전적 의미보다는 "주체미술론" 관점의 개념 풀이가 더 중요시된다. 김정일의 예술 창작이론서 중 하나인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이론』(1986)<sup>14)</sup>을 살펴보면,

12 박철룡, '산업미술과 그 특성', 《노동신문》, (2013.11.13), 3면

13 1992년 발간된 『조선말대사전』과 2007, 2017년 증보판은 '산업미술'의 동일한 뜻풀이를 담고 있다. 사회과학원 편, 『조선말대사전 - 증보판 2』, p.608  
14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이론』(1986)의 저자 중 한 명인

산업미술은 공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업생산 제품 외에 건축물, 생활환경까지 좀 더 넓은 범위에 응용되는 미술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이론』의 〈산업미술〉 정의<sup>15)</sup>

“산업미술이란 한마디로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외적형태와 내부부문들의 모양, 색채와 장식 등 건축물의 내부비품들의 배치 및 생활환경을 사람들의 미학, 정서적 요구에 맞게 실현하는 미술이다”

북한 사회의 광의(廣義)한 산업미술의 개념은 사전에 풀이된 ‘공업(工業)’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과 특히 ‘우리식 산업미술 대전성기 시대’라고 자평하는 김정은 집권기 IT 기기, UI 디자인<sup>16)</sup>이나, 편의봉사사업(서비스업) 디자인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산업경제가 성장하면 디자인 수요 대상도 증가하는 것처럼, 북한 산업미술도 정권 수립

초기 공예산업부터 시작해 중공업, 기계공업, 경공업, 상업, 최근 관광서비스업 도안까지 디자인 수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 산업미술 중 김정일 집권기부터 준비해 최근 활동 영역을 넓힌 분야는 정보기술 관련 도안들이다. 북측에서 UI, UX 디자인이라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지 확인 불가능하지만, 모바일, 앱, 게임 등 프로그램 개발에 미술대학에서 컴퓨터 조형교육을 받은 도안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2년 2월에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북한 종합 IT 기업 ‘조선 엑스포’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미술대학을 비롯한 우수한 대학들에서 높은 급의 정보기술교육을 받은 20대의 젊은 인재들이 자기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평양미대가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양미술종합대학 10여 개 학부 중 본 연구자는 게임 개발 관련자들은 출판미술, 아동미술 전공학부에서, 인터페이스 설계는 상업미술학부에서 학습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 3. 북한 산업미술 연구의 특수성

#### 3.1. 기록 자료들의 전일적 체계와 연결성

국내에서 북측 미술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 북한미술 연구자들은 북측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이나 전시도록, 신문에 실린 사진을 통해 작품을 관찰하거나 북측의 미술 이론가, 비평가들이 쓴 글들을

김순영은 평양미술대학에서 미술 이론과 학문적 기틀을 만든 한상진의 제자이자, 『조선미술사 1』(1987)와 『조선미술사 2』(1990)를 공동 집필한 북한의 주요 미술 이론가, 평론가이다. 그는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 편찬한 『문학예술사전』 상중하 3권(1988-1993)의 미술 관련 올림말(표제어) 120여 건의 해설을 맡았다.

15 박현중, 김순영, 『공예 및 산업미술 창작이론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이론총서』, (평양: 문예출판사, 1986), p.178

16 강진규, “북한 산업미술 기술합작회사, 산업미술 모바일 프로그램 ‘명안’ 출시”, NK경제, 아리랑 매아리,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3>, (2020. 4. 1); 강진규의 기사에 따르면 산업미술 기술합작회사는 산업미술 작품들의 아카이빙과 산업미술 관련 상식, 국제관례 기호들을 제공하는 손전화(핸드폰)용 앱을 디자인하였다고 전해진다.

통해 정보들을 수집하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로 저장된 북한 작품의 이미지나 영상을 종종 접할 수 있지만, 작가의 목소리를 듣거나 전시 관람을 통해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희박하다.

남한에서 접할 수 있는 산업미술 연구자료들은 일반 회화에 비해 더욱 부족하다. 북한의 국가미술전람회의 전시도록이나 문예연감들이 회화, 특히 조선화 위주로 대표작들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 이후 과거 북한의 산업미술 역사 연구를 위한 기록 사료 대부분은 노동당과 조선미술가동맹과 관련된 기관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조선미술가동맹이 발행한 《조선미술》, 이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 출판사에서 예술 분야 정기간행물로 발행되는 《조선예술》, 산업미술 보도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대표적 기록 자료들이다. 북한에서 산업미술 소식, 관평, 산업미술 작품 평론, 작품 사진들을 신고 있는 대표적 연속간행물들을 조사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정리된다.<sup>17)</sup>

오른쪽 정기간행물 중 《노동신문》은 노동당의 산업미술 정책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산업미술 관련 전시들과 작품들은 문학예술 종합출판사가 발행하는 『조선문학예술년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 표 재구성, 최희선, 「북한 산업미술(디자인)의 최근 변화: 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 매체에 소개된 디자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2015 신진연구자 논문집』, (통일부, 2015), pp.723-807

No.	자료명	발행처	창간년도
1	노동신문(1946년 제호(正路(正路))변경)	로동신문사	1945.11
2	조선미술년감	문예출판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3	조선문학예술년감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문학예술출판사	
4	조선미술	조선미술가동맹	1956.1
5	조선예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구)문학예술출판사	1967. 제1호
6	예술교육	2.16예술교육출판사	2001.1
7	천리마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구)문학예술출판사	1959.1
8	조선건축	공업출판사	1990. 제1호
기타	『5.21 건축축전'작품집』, 『국가미술전람회 작품집』(문학예술출판사)		

[표 1] 북한 산업미술 관련 정기간행물들

문예연감은 연도별로 교육기관, 창작사의 소식도 정리해 기록하므로, 산업미술의 활동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자료이다. 북한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가 주관해 발간하는 「조선건축」, 『〈5.21 건축축전〉 작품집』은 북한의 건축장식, 가구, 공공시설물 설계 자료들 제공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북한의 건설 붐이 일면서 환경 디자인 관련 도판을 많이 신고 있다. 산업미술 교육은 2001년부터 발행되는 《예술교육》을 참조하면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산업미술에 대해 교양 기사를 실는 「천리마」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원이다.

위 [표 1]을 살펴보면, 정기간행물들의 발행처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 간행물들은



문학예술총동맹과, 특히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조선문학예술가총동맹과 조선건축가동맹은 노동당의 100여 개 문학예술 외곽 단체에 속해있다. 그리고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에 문학예술종합출판사(구 문학예술출판사)에 예속되어 있으며, ‘조선미술가동맹’과 그 산하 분과인 ‘조선산업미술가동맹’도 문예총이 포괄하는 7개 예술단체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에 있다. 좀 더 정리해보면,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조직지도부 1부의 4과, 9과에서 문화예술, 출판·보도 담당), 선전선전부(내각 문화예술부 지도)<sup>18)</sup>와 내각의 문화성 문화예술부, 문학예술총동맹-조선미술가동맹-조선산업미술가동맹’이 하나의 연결된 조직 구성 안에서 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정치이념과 문예정책 하에 산업미술과 관련된 글과 기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산업미술과 관련된 1차 문헌 자료들 모두 당의 방침을 떠나 독자적인 비평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기록된 결과물들이다. 이러한 특징은 산업미술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계의 공통점이다. 북한의 문예총, 조선산업미술가동맹은 당 노선을 따르며, 내각 문화성을 통해 행정적인 지도를 받아 중앙당 정책에 의해 활동하는 특성을 보인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인쇄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 출판물의

사전적 정의는 ‘사상과 인민대중을 연결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당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조직하는 힘 있는 무기’로 정의된다.<sup>19)</sup> 이문학(2018)은 북측의 잡지, 신문, 책 등의 인쇄물들은 “철저한 계획과 통제하에 생산되기 때문에 하나의 무기로 북한 사회의 통치이념과 연결되며, 3대 권력 세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판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북한에서 공식 검열과정을 거쳐 대중에게 전달되는 모든 출판물과 언론 기사들도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방침과 선전선동부의 통제 하에 김일성주의에 뿌리를 두고 인민들의 사상교양을 위해 글을 작성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미술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북측의 기록자료들은 수령 우상화, 주체사상이 내재되어 있는 “국가 사료”로 평가된다.

### 3.2. 사회집단주의적 디자인 관점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sup>20)</sup>

이 구호는 19세기 중엽에 발표된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의 소설 『삼총사(Les Trois Mousquetaires)』(1844)에서 등장하는 대사이다. 3명의 주인공이 칼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18 윤보영, 「북한의 군중문화-예술선전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4), p.91

19 이문학, 「북한의 출판 사상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81호, (한국출판학회, 2018), pp.40-41

20 「사회주의의 위력은 집단주의위력」, 《노동신문》, (2016.8.16)



[그림 1] 김용-김영광,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창조자가 되자!>, 2009, 선전화, 『조선문학예술년감 2010』, p.301



[그림 2]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가 걸린 평양 장마당 사진, 『서울신문』, (2018.1.5)

위하여(Un pour tous, Tous pour un)”를 외치는 장면으로 유명해진 말이다.

이 문구는 묘하게 북한의 집단주의를 대표하는 구호가 되어 한국전쟁 이후 북녘 사회에 정착하였다. 구호가 자주 등장한 시기는 전쟁 복구기인 50년대 말, 시기적으로 천리마 운동(1958-1961)이 한창일 때이다. 이때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선전 구호는 국가 경제 재건을 위해 전체 인민에게 총동원의 선동과 증산 독려용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현재까지도 노동신문 기사들<sup>21)</sup>이나 정치, 경제 선전화의 슬로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선전 구호는 당 과업 선동뿐만 아니라 ‘김일성 중심의 하나 된 조국’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이 구호는 개인보다 ‘조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대가족주의, 집단주의, 반개인주의적 국가이념을 대변하는 표현이 되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를 ‘사유’에서 ‘공유’로 바꾸는 사회개조 사상운동으로 출발해, 국가체제를 바꾸는 정치혁명으로 이어졌다. 북측사회는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개선관리조치’를 발표하였지만, 사회주의적 대가족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산업미술도 개인의 창작능력, 기업소, 공장의 판매실적보다 하나의 ‘조국’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한다. 북한 산업미술도 개별 공장, 기업소의 이익 추구보다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도안가들에게 사회주의 정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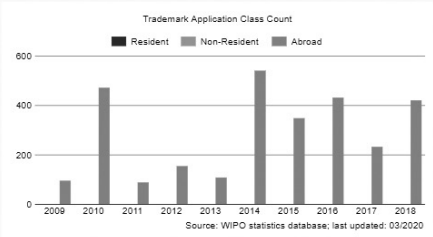
북한 사회는 국가 기간산업(key industry)의 전면 공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산업미술은 제조업과 농업, 건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도안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북한의 공업미술의 대표적

21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노동신문》, (2018.1.26), 논설 「공화국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 《노동신문》, (2018.8.1)

**Trademark (class 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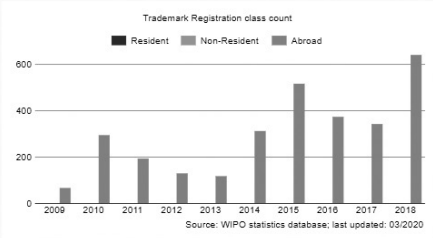
**Number of Classes Specified in Trademark Applications**

Year	Resident	Non-Resident	Abroad
2009			95
2010			471
2011			88
2012			154
2013			108
2014			540
2015			348
2016			431
2017			232
2018			420



**Number of Classes Specified in Trademark Registrations**

Year	Resident	Non-Resident	Abroad
2009			66
2010			294
2011			193
2012			129
2013			117
2014			312
2015			516
2016			373
2017			342
2018			640



[그림 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된 북한 국제상표 통계 (2020.5.23)

사례가 농기계인 <천리마 트랙토르 형태도안>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공업은 8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사회주의 헌법 제24조 내용처럼 북한 주민 스스로 생필품 ‘소비’, ‘구매’ 결정권을 갖기보다 국가가 주민에게 ‘분배’, ‘소유의 혜택’을 제공하는 물자배분구조에서 성장하였다. 북한은 소비를 촉진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디자인과 근본적으로 입장 차이가 있다. 최근 북한이 국제 상표(Global Trademark)와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의 상품 등록에 박차를 가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경제의 공동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이자 ‘One China’ 정책을 유지하는 중국도 국가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사상적 지침을 내린다. 2010년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상무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디자인 발전 추진을 위한 지침서><sup>22)</sup>에는 “산업디자인의 지도사상으로 ‘등소평(鄧小平)이론’과 ‘3대 대표’ 중요 사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정부의 지원과 시장 조절의 결합을 유지하며, 산업디자인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준다”고 중국은 명시하고 있다.

중국도 사회이념의 통합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덧붙여 최고 권력자들의 문예이론 강령을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북한의 산업미술가들은 사회주의 도덕에

22 중국은 『공신부연산업』 390호(2010)에서 “개혁개방 이후, 우리 국가의 산업디자인은 크게 발전했다. 현재, 디자인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특히 경제 수준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라고 기록하였다.

적합한 스타일을 추구하며, 민족적인 디자인 형식을 취하고, 지도자가 강조하는 “우리식 산업미술” 혹은 “주체적 산업미술” 정신을 창작의 태도로 삼는다.

#### 주체적 산업미술<sup>23)</sup>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산업미술이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에 바탕을 두고 리운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산업미술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업미술을 철저히 주체 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야 한다.”

북한 산업미술의 사회집단주의적 특성은 제품 상표명을 개발할 때 개인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지명이나 수령 혁명사를 상징하는 이름, 숫자로 부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여러 미술가가 한 작품을 공동 창작하는 ‘집체작’ 문화로도 드러나기도 한다. 북한의 사회집단주의 태도는 산업미술에서 특정 스타일에 대해 배척하거나, 개인의 취향을 강조하지 않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집단주의적 특성은 북한 산업미술 작품들이 인민 대중의 눈높이의 맞고, 사회 도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일종의 ‘디자인 윤리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산업미술의 창작이론에서 사회주의국가 공동체 의식과 물질문명에 대한

윤리의식,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 공동체 미의식을 강조하는 특징으로 드러난다.

#### 4. 북한 산업미술 70년 전개를 이끈 두 개의 축: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주체미술론

다양한 방법의 디자인 역사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북한 산업미술의 경우 사료들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접 분야를 통해 과거를 함께 탐색하는 방법은 보완적 대안을 마련해 준다.

정치색이 짙은 북한 산업미술의 경우 디자인 역사서를 저술한 존 헤스켓(John Heskett)의 주장도 참고해볼 만 하다. 그는 저서 『산업디자인의 역사』<sup>24)</sup>에서 “디자인은 산업에서 미적 창작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경제 성장, 정치 선전, 군사력 증진, 문화 우월성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설명한 ‘디자인의 정치적 역할’은 7가지로 정리되는데, 북한 산업미술의 70년 전개 과정을 대입하면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다.

존 헤스켓이 주장하는 ‘정치적 디자인’은 주로 국가 중심의 사회, 혹은 민족주의 색을 보이는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점들이다. 특히 국위를 표출하는 방법으로서의 디자인, 국가의 자급자족을 기회를 확대하는 디자인, 군사미술과 국방산업에서 디자인을 활용하는 현상은

23 본사기자 해설, “주체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우리나라 산업미술발전의 근본원칙”, 《예술교육》 제4호, (2016), pp.15-16

24 존 헤스켓, 정무환 편, 『산업 디자인의 역사』, (시공사, 2004), pp.205-224

No.	자료명	북한 산업미술 특성
1	자국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수입 증대의 수단	국가경제 목표
2	전시회 등을 통한 무역 역량 강화와 국위 선전 도구	국위 향상에 활용
3	전쟁, 군비 경쟁에서 군사 우위를 차지하는 결정적 역할 수행	군사력 과시
4	국가 경제의 자급자족 수준을 높이는 정책 수단	경제 자립 강조
5	민족주의적 특성과 경제적 이익의 결합	민족 우위 강조
6	정치 선동 수단	대중 선동 활용
7	세계화를 위한 상공업 진흥 수단	국가브랜드 진흥

[표 2] 존 헤스켓이 제시한 디자인의 정치적 역할과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 비교

북한에서 2012년 이후 사회주의 물질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도구로 디자인을 추동하고 있는 점도 그의 주장과 일치한다.

북한 산업미술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 산업미술에 영향을 주고받는 분야는 단연 ‘경제’와 ‘미술’ 분야이다. 실제 『조선미술년감』과 『조선문학예술년감』의 기록을 관찰하면, 북한 산업미술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그 기간 엄청난 양의 창작물을 사회로 쏟아내고 대형 전시회를 마련해 홍보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산업미술의 활동이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때도 확인된다.

이러한 북한 경제-산업미술-문화예술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해방 이후

정권수립 준비 기간부터 2018년까지 70년 동안 경제정책과 산업미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미술계의 흐름을 연대순으로 [표 3]을 정리해보았다.<sup>25)</sup>

『조선미술사 2』<sup>26)</sup>의 기록에 의하면, 북한 산업미술은 기계공업, 경공업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북한은 제2차 1개년 계획 해인 1948년 9월부터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산하에 도안가들을 배치하여 생산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1974년 산업미술 독립조직인 경공업미술창작사를 조직하여 6개년 계획(1971-1976년) 목표량을 달성하게 하였다.

1980년대 경제-산업미술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 소비제품의 생산이 부족하자 ‘인민소비품생산운동’(1984)을 확대하며 제1회 국가산업미술전람회를 개최(1984.11)한 것도 관찰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외교·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심한 물자확보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 기간 산업미술 활동은

- 25 [표 3]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희선, 「북한 산업미술(디자인)의 최근 변화: 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 매체에 소개된 디자인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2015신진연구자 논문집』, (통일부, 2015)의 표를 기초로 재구성하였다.
- 북한경제(1945-1998): 조동호 외,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02), pp.213-251
  - 북한경제(1998년 이후): 이상만, 「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 『현대북한경제론』, (오름, 2005), pp.54-83
  - 북한미술사: 김순영 외, 『조선미술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p.1-263
  - 북한 산업미술: 북한 문화예술관련 정기간행물 『조선예술』의 기사 내용 분석
- 26 김순영 외, 『조선미술사 2』, pp.1-263

북한 경제 시대 구분

북한 산업미술 전개 과정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기(1945-1960)  
주요산업 국유화(1946)  
1차 1개년 계획(1947)  
2차 1개년 계획(1948)  
▼  
2개년 계획(1949-1950)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1956)  
5개년 계획(1957-1961)

정권 수립과 국가상징 창작기



국유화 산업의 도안창작 도입기:  
산업성 경공업관리국 조직(1948.9)



1950년대 전후복구 산업미술 활용기:  
경공업미술연구소 발족(1955)



사회주의 경제건설 추진기(1961-1974)  
1차 7개년 계획(1961-1970)  
▼  
북한 경제 쇠퇴기(1975-1989)  
6개년 계획(1971-1976)  
2차 7개년 계획(1978-1984)  
인민소비품생산 운동확대(1984)  
1984년 합영법 제정 후 외자유치 추진  
3차 7개년 계획(1987-1993)  
1989년 경공업의 해 지령

1960년대 산업미술 성장기:  
평양미대 공예도안학과 신설(1956)  
도안학부는 독립학과 산업미술학부로 개칭(1961)  
미술가동맹 '공예분과'에서 '산업미술과분과' 독립(1964)  
(조선화 화법의 정착)



1970-80년대 산업미술 발전기: 독립조직화  
'경공업미술창작사'개칭(1974.8)  
70년대 시도의 지방공업총국 산하 산업미술연구소 운영  
전국 공예 및 산업미술전람회(1977 추정)



제1회국가산업미술전람회 개최(1984.11)

북한 경제 몰락기(1990-1997)  
3대 제일주의 경제혁명전략 (농업, 무역, 경공업) 제시(1993)  
▼  
계획경제 붕괴 후 전환기(1998-2002)  
강성대국 건설 경제활성화 방침(1998.8)

1990년대 산업 없는 산업미술 쇠퇴기  
경공업혁명관철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개최(1990.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분권적 계획경제기(2002년 이후)  
시장자율화 내부 억제조치와 핵심험으로 인한 대북제제, 대외교역  
중단(2006년 이후)

21세기 초 산업미술 부흥기



산업미술전람회 개최(2002, 2003)  
평양미대 산업미술학부 '3대혁명붉은기' 수여(2004)  
산업미술연구토론회 개최(2005)  
전국산업미술전람회 개최(2008)

디자인 전담기구 조직(2010-2012)  
강성대국 원년 준비(2012년까지)

2010-2011년 디자인 개혁기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재조직(2010.3)



국가산업미술중심 계획(2010), 건물 준공(201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개혁기(2012년 이후)

2012년 이후 디자인 전성기  
매해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개최

[표 3] 해방 이후 북한 경제의 시대 구분과 산업미술의 전개 과정

거의 『조선미술사 2』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이때 북한은 해외 교역보다 내부 산업의 자립적 구조를 강조하는 ‘주체경제노선’<sup>27)</sup> 정책을 펴게 되지만, 원자재, 에너지 부족으로 국영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되어 산업미술이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다. 국가산업미술전시회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1984년 11월 제1회 산업미술전람회 이후부터 2000년까지 개최된 전시회는 의상, 신발, 식료품 등 인민 생활소비품(기초 생필품) 위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계도안은 축소되었으며, 실현제품 전시 역시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북한 산업미술이 21세기 초반 활동을 재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고난의 행군 마지막 시기인 90년대 말 경제적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하여 일명 ‘강성대국 원년(2012)’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계획하게 된다. 이후 21세기 초반에는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고수하던 철저한 계획경제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되는데, 바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그것이다. 이 조치 이후 생산단위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이 자율적으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포럼회를 열거나, 산업미술가들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북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북한 산업미술은 2012년 대규모 국가전시회를 계기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 북한의 경제-산업미술의 흐름을

27 북한 주체경제노선이란 국가 자력강생, 경제 자급자족 경제 운용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정책을 말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구소련처럼 ‘국가계획경제체제’에 의해 중앙당이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전문인력 배치, 산업 활용을 결정하며, 국가 경제정책에 따라 산업미술의 활동이 크게 영향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No.	북한 계획경제에 따른 산업미술 정책	정책추진 이후 변화
1	산업현장에 전문 도안가 투입	교육 기관, 학부 설립 증가
2	경제계획 목표에 맞는 도안 창작	정기적 전시회 개최
3	자력강생을 위한 생필품 국산화에 투입	다품종, 다양화 추구
4	시장 단속을 위한 도안의 검열·등록, 보호제도 마련	공업, 상업도안 창작 증가
5	새 지도자 경제업적 선전 역할	언론매체 관심 증가
6	대외무역 향상과 상공업 진흥을 위한 도안 지원	제품의 미감, 품질 향상

[표 4] 과거 70년 동안 북한 계획경제 정책에 따른 산업미술 영향

북한 산업미술 연구는 예술론과 미학, 특히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미술론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고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축으로 당의 문예이론의 방침에 따른 미술계의 변화를 함께 관찰하였다. 북측의 주체문예이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에 적용한 것으로, 사실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되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는 일종의 ‘예술 강령’이다. 주체문예의 방침은 모든 예술 활동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아 대중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북한 산업미술의

일본미술 배척 및 사회주의 미술의

기초 건설시기(1945-1953)

- 북조선미술동맹 결성(1947)
- 1회 북조선미술전람회 개최(1947)
- 평양미술전문학교 설립(1947.9)



▶ 사회주의 리얼리즘 화법 보급

▶ 정권 수립에 따른 국가상징 창작기

- 민족과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소재들을 응용한 국기, 국장, 기관마크, 휘장, 깃발, 훈장, 우표 등을 도안

사회주의식 미술교육 개편기(1953-1954)

- ‘전국미술전람회’ 대신 ‘국가미술전람회’로 개칭(1958)
- 평양미술대학의 사회주의식 교육 졸업생 배출



▶ 전후 사회 복구와 사회주의 건설 지원

- 사회주의식 문학예술정책 본격화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미술의

전면적 건설시기(1954-1966)

- 조선화 우위정책 정착, 집체창작물 증가



김일성 교시 중심 주체미술 전성기(1970년대부터)



김정일 지도의 주체미술기(1980년대)



『김정일 미술론』 중심의 주체미술기(1990년대)



- 1단계: 전국공예전람회에 경공업도안 출품(1960)

▶ 조선화 화법의 산업미술 정착기(1960년대 중반부터)

- 공업, 상업, 건축·장식미술 증가. 집체작 작품 증가
- 2단계: 7개년 경제 계획 수행, 공업발전을 위해 중공업부문 형태도안, 기계도안, 모형틀 다수 창작
- 도시 상업망 증가로 거리 상업체계에 맞는 간판, 상품 소개
- 선전화, 상점내부장식 도안 창작

선군시대의 주체미술 시기(1998-2011)

- 『김정일미술론』(1992) 중심의 주체미술기(1990년대)



유헌에 따른 주체미술 지속기(2012년 이후)

▶ 1990년대 후반 산업미술 재정비:

산업미술 행정조직 재정비, 교육강화, 지식재산 관련법 제정, 국전 기획

- 공업종합출판사 『생활필수품 형태도안자료집(2)』 발간(1993)
-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재조직(2010.3)
- 국가산업미술중심 계획(2010)
- ▶ 국가산업미술중심건물 준공(2012)
- 국가산업미술사회 개최(2012년 이후 매해 4월)

[표 5] 해방 이후 북한미술의 전개 과정



조형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표 5]<sup>28)</sup>에서 북한미술의 전개 과정과 산업미술계의 변화를 시대별로 정리해보았다.

표를 보면 북한의 산업미술은 정권 수립 이후 사회주의권 미술의 영향을 받다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조선화' 화법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미술 창작 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사상까지 더해져 '주체미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실질적인 권력 중심자인 김정일에 의해 산업미술이 다시 재정비되지만, 여전히 산업미술의 조형 특성을 만드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선대 지도자의 미감을 따르고 있다.

1960년대부터 이어진 북한의 문예 방침 영향으로 북한 산업미술은 내용과 표현 형식에서 남한은 물론이거니와 타국의 것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산업미술도 아름다운 도안보다 당의 정책을 부합하는 내용으로 디자인되었다. 내용 면에서 항일투쟁 소재가 들어가거나, '백두', '햇불', '진달래'가 각종 마크 도안에 활용되는 점도 북한의 '우리식' 디자인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화법 면에서는 추상적 표현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묘사기법을 선호하여, 포장과 상표도 기하학적인 것보다는 설명적인 디자인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조선화의 선묘와 같은 단 붓질(한 획으로 그린) 형태의 마크들도 민족성을 드러낸 우수한 상표로 북한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현재 북한에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상품들도 생겨났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들을 통해 드러난 산업미술 경향은 모두 북한의 주체문예이론과 김정일의 미술창작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 5. 결론

최근 국내 언론에서도 '북한이 디자인에 눈을 뜨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 산업미술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전시의 규모나, 제품 디자인 개발의 비중도 높아졌다. 하지만 북측 디자인은 최근예야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을 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천천히, 계획적으로 전개되고 발전되었다.

북한의 일반적인 역사와 북측의 산업미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연구자가 북한의 70년 산업미술 흔적을 조사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북측이 시대별로 직접 생산해내는 각종 자료 즉, 1차 사료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태도'의 객관성을 찾는 학술적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 산업미술 역사 연구의 자료들은 '국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당'이 주체가 되어 생산하는 기록들로서 연구 과정에 사실 근거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산업미술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접 분야와 다학문적 접근 방법을 시도해보는

28 [표 5]는 아래 참고문헌의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하여 만들.  
1. 북한 미술사: 김순영 외, 『조선미술사 2』의 시대 구분 참조  
2. 북한 『조선문학예술년감』과 『조선예술』의 관련 내용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 특히 북한 산업미술 발전의 원동력인 시대별 경제정책과 북측 조형성의 뿌리인 '주체미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고찰하는 데 필요하다.

북한 산업미술은 주민들의 일상 단면과 정치적 이상을 보여주는 시각 증거물로 높은 가치가 있다. 얼마 전 북한디자인 전시를 한국에서 볼 수 있었다. 관람객들이나 언론의 전시평을 읽어보면 북한 산업미술을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미화하거나 가치를 폄하하는 글도 볼 수 있었다. 북한의 도시환경, 건축, 제품, 상표·포장, 의상,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을 시대의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앞으로 북한 산업미술 70년 역사 연구를 통해 북측 사회의 정치적 역동성, 시대 의식, 경제 상황을 엿보고, 남북디자인계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

### 참고 문헌

- 김순영 외, (1990), 『조선미술사 2』, 사회과학출판사
- 박현종 외, (1986), 『공예 및 산업 미술창작리론-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리론총서』, 문예출판사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1988-1993), 『문학예술사전』(상중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사회과학원 편, (2007),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 사회과학출판사
- 유홍준, (1990), 「북한미술의 사적(史的) 전개와 그 이해」, 『북한의 예술』 북한의 인식-9, 을유문화사
- 이상만, (2005), 「북한 경제의 역사적 배경」, 『현대북한경제론』, 오름
- 조인규 외, (1987), 『조선미술사 2』, 사회과학출판사
- 존 헤스켓, 정무환 편, (2004), 『산업 디자인의 역사』, 시공사
- 김진홍, (1999), 「북한 미술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산업미술의 관계」, 『북한연구 2』,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편, (2011), 『2015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통일법 연구 기초자료집』, 북한법연구회, p.1111
- 이문학, (2018.3), 「북한의 출판 사상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81호, 한국출판학회
- 최희선, (2011),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과 남북 디자인 교류 전망」, 『2011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 최희선, (2015), 「북한 산업미술(디자인)의 최근 변화: 김정일-김정은 집권 시기 매체에 소개된 디자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2015 신진연구자 논문집』,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권승희, (1996), 「남북한 가로짜기 신문 편집디자인 비교 연구: 일간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윤보영, (2004), 「북한의 군중문화-예술선전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본사기자, (2016.7), 「주체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우리나라 산업미술발전의  
근본원칙, 《예술교육》 제4호

- 박철룡, (2013.11.13), 「산업미술과 그 특성」,  
《노동신문》, 3면
- 본사기자, (2018.1.26), 「천리마대고조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노동신문》
- 본사기자, (2018.8.1), 「공화국의 품속에서  
누리는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 《노동신문》
- 본사기자, (2016.8.16), 「사회주의의 위력은  
집단주의위력」, 《노동신문》
- 국사편찬위원회 편, (1908.8.13, 양력),  
「순종 1년」 1번째 기사, 『조선왕조실록』
- 이한섭 외, (2012),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조동호 외, (2001), 『북한 경제 발전 전략의  
모색』, 한국개발연구원
- 강진규, (2020.4.1), “북한  
산업미술기술합작회사, 산업미술  
모바일 프로그램 ‘명안’ 출시”, NK경제,  
[http://www.nkeconomy.com/news/  
articleView.html?idxno=2893](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3)

### 그림 차례

- [그림 1] 김용·김영광, 선전화 <하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창조자가 되자!>, (2009),  
『조선문학예술년감 2010』, p.301
- [그림 2]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구호가 걸린 평양 장마당  
모습, 《서울신문》, (2018.1.5)

- [그림 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된 북한 국제상표 통계 (2020.5.23)  
기준

### 표 차례

- [표 1] 북한 산업미술 관련 정기간행물들
- [표 2] 존 헤스켓이 제시한 디자인의 정치적  
역할과 북한 산업미술의 특성 비교
- [표 3] 해방 이후 북한 경제의 시대 구분과  
산업미술의 전개 과정
- [표 4] 과거 70년 동안 북한 계획경제  
정책에 따른 산업미술 영향
- [표 5] 해방 이후 북한미술의 전개 과정

